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농민혁명  
1894

2020 | 봄 | 39호

##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http://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http://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칼럼  
정남기 /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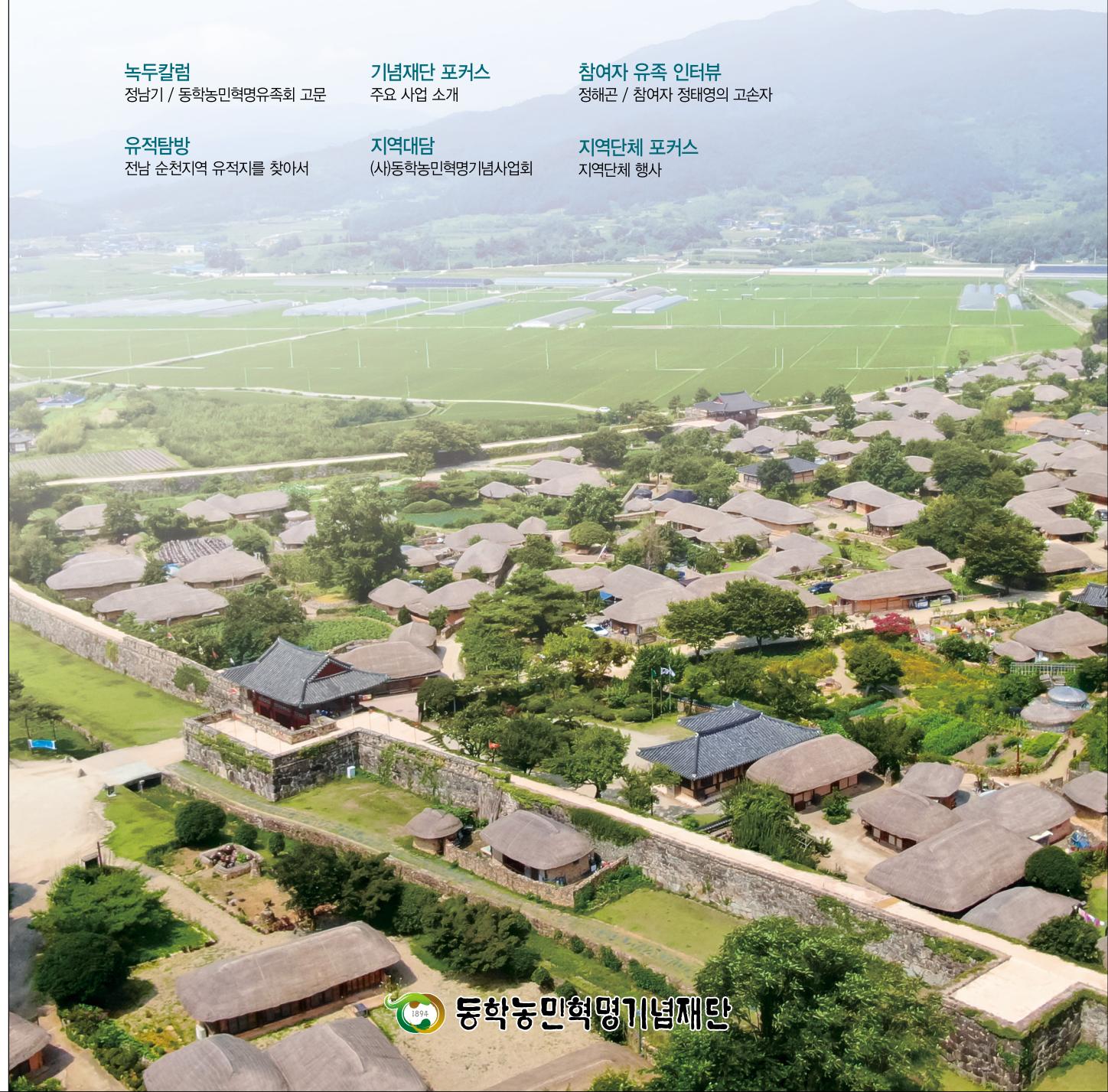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참여자 유족 인터뷰  
정해곤 / 참여자 정태영의 고손자

유적탐방  
전남 순천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지역대담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 금성정의록



금성정의록 1946년 19.3×28.5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금성정의록』은 나주 유생 이병수(李炳壽, 1855~1941)가 「검산유고(謙山遺稿)」(全20책 중 10책의 제19권~20권)에 수록한 사료로 1894년 이래 3년간의 동학농민혁명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고부농민봉기를 비롯하여 나주 관군의 수성(守城) 관련사실, 나주 접주 오권선과 농민군지도자 최경선의 활동상, 전봉준 장군의 나주목사 설득, 순화종·최경선·오권선이 나주를 공격한 사실 등이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나주와 그 인근지역의 농민군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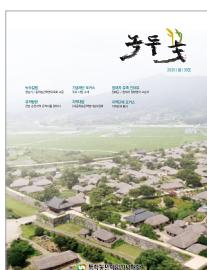
###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8-2897

02	<b>역사의 눈</b> 금성정의록
04	<b>녹두칼럼</b> 장남기 / 동학농민군의 꿈, 그 현재화를 위하여
06	<b>기념재단 포커스</b>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수여식 자문위원회, 이사회 이사회, 기념관 운영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16	<b>참여자 유족인터뷰</b> 정해곤 / 참여자 정태영의 증손자
23	<b>유적 탐방</b> 전남 순천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26	<b>관람객 인터뷰</b>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30	<b>지역대담</b>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38	<b>지역단체 포커스</b> 순창 총댕이 마을 준공식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4주년 기념행사
40	<b>기념관 사람들</b> 문화 해설사가 들려주는 동학농민혁명
44	<b>파랑새 소식</b>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단체
46	<b>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안내</b>



**제자(題字) : 흐봉 여태명**

**표지 설명** : 낙안읍성 전투지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인배 장군이 이끌던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는 순천(順天)에 근거를 두고 호남의 광양·순천·별교·보성은 물론이고, 영남의 진주·하동·산청 등 남해안 중부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다. 낙안읍성은 1894년 9월 15일(양력 10.13.) 양허일(梁河一) 중심의 동학농민군에게 함락되었다.

# 동학농민군의 꿈, 그 현재화를 위하여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1894년 처절하게 짓밟혔던 동학농민군의 꿈이 1백년 뒤 1994년에 되살아났다. 찬 서리 뒤덮인 동토에 암매장되었다가 썩을 틔우고 다시 꽃을 피운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숨죽이던 일꾼들이 들고일어나 기념사업단체를 만들고 추모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회도 탄생하였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전국을 누비며 어렵게 찾아낸 10여 명의 농민군 후손들은 서울 회현동 소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유족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 이후 1994년 3월 3일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창립된 유족회와 전국 기념사업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이 연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실적을 올렸다. 특별법 제정, 기념재단 설립, 전봉준 동상 건립 등이 그것들이다.

유족회 창립 초기 때 전국의 기념사업단체와 함께 동학농민군서훈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한승현·이이화·김중배·예춘호·장을병)를 구성하여 범국민적인 모금운동과 함께 홍보전을 펼쳤다. 나아가 2000년 1월 동학농민혁명 국회연구모임(회장 김태식)을 만들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시루떡을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노력의 결실이 특별법 제정, 기념재단 설립, 기념일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26년의 활동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1세대가 쌓아 올린 성과에 만족하여 그 열매를 즐기며 세상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신발끈을 다시 조이고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수도권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전봉준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일상에서 접하게 하여 농민군들의 꿈을 현재화해나가야 한다. 기념재단이나 기념관이 전북에만 머물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가치가 전라도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도 서울에 반드시 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의 핵심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훈장을 추서하고, 후손들의 명실상부한 명예회복을 위해 공주 우금치에 국립묘역을 조성·성역화 하는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세 번째 조국통일에 대비하고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제를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때처럼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전공 연구자, 기념재단 등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창립 후 기회 있을 때마다 후손은 후손다워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할아버지들의 참여 사실을 무슨 벼슬처럼 여긴다든가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갑오선열의 유지를 받드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유족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왔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동학농민혁명은 수많은 무명 농민군들이 참여한 일대사변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많은 국민들이 참여자 후손임에 틀림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후손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해온 연구자와 지역의 일꾼들을 한없이 존경하고 의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위상이 높아졌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보다 완전하게 재정립하고, 이를 드높이기 위하여 유족회와 역사학계, 기념사업단체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정남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백현의 손자(孫子)로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상임이사,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감사, 연합통신 민족뉴스 취재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지난 2019년 12월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형규 위원장(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심위위원 최효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이재운(전주대 교수,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최민자(동학학회 회장), 조사 위원 김양식(충북연구원 연구소장)·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등 11명이 참석하여 유족등록 신청 31건 심의, 23건(참여자 6명, 유족 223명)을 의결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사실 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2004년에 시작된 참여자 및 유족은 현재 참여자 3,670명과 유족 11,222명이 등록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수여식



□ 유족대표 및 내빈



□ 인사말 | 이형규 심의위원회 위원장



□ 유족등록통지서 수여식



□ 유족 대표 및 내빈

지난 2019년 12월 1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등록 통지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2019년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223명 중 26명(김선호, 김수호, 김용무, 박남숙, 박남옥, 박병갑, 박은희, 박종호, 박찬권, 박찬진, 박윤우, 서지언, 이덕하, 이득만, 이명재, 이복만, 이성재, 이진석, 정재균, 정복덕, 정종례, 조영자, 조옥자, 조옥희, 최정길)이 참석했다.

## 자문위원회



지난 2019년 12월 1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기념공원 조성사업 및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추진계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이 보고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 자료 수집·목록화, 참여자와 유족 및 유적지 발굴조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이 이루어졌다.

## 이사회



지난 2019년 12월 1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4기 3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정관 및 직제 규정, 인사규정 개정, 기념공원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규정 제정,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추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사회



지난 2월 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4기 4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결산이 심의·의결되었고,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추진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 기념관 운영위원회



지난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2019년도 기념관 운영 결산사항 심의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이 보고된 이날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전국화 할 수 있는 홍보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내 전시실의 콘텐츠 개선, 노후화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차원의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근대 민주주의 운동이며,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일 민족주의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축소·왜곡되어 오다가 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전후 전국에서 창립된 기념사업단체들의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에 힘입어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 교육·체험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주제 전시실 및 체험·교육, 연수동, 야외캠핑장, 주모관, 참여자 묘역 등으로 구성될 기념 공원은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18년 국·공유지 양수 및 매입을 거쳐 지난 해 12월 착공하였으며,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 ▣ 기념공원 조감도



## ▣ 기념공원 종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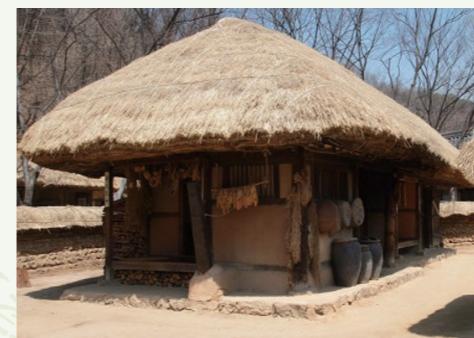


## ▣ 기본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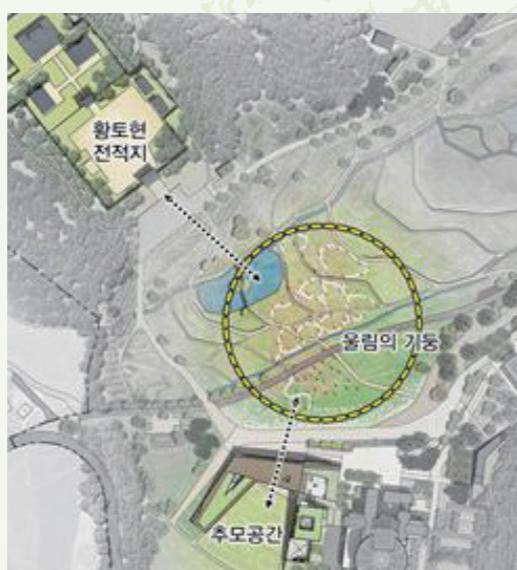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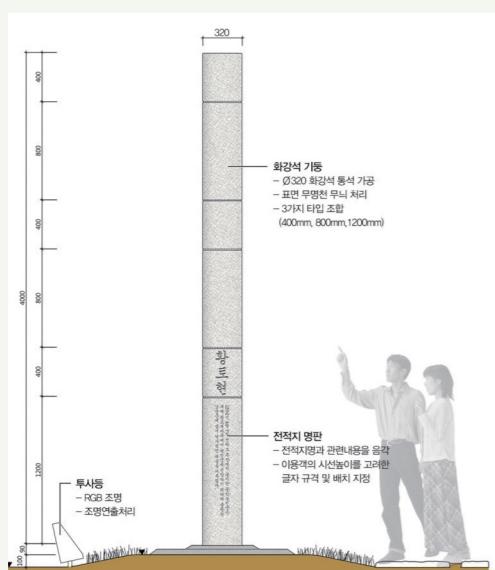


■ 기억의 들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놀배미 형태를 모티브로 황토현의 길과 물길 등 옛 경관을 복원, 갑오년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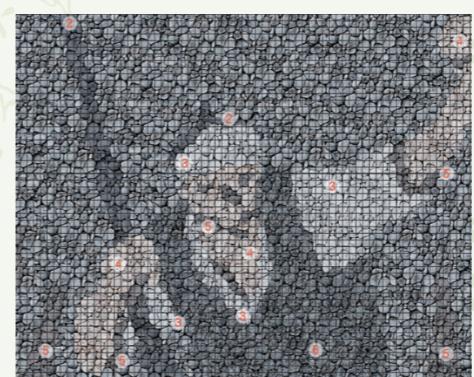
■ 농민혁명의 길 구상도 ■



■ 울림의 기둥 구상도 ■

### ■ 울림의 기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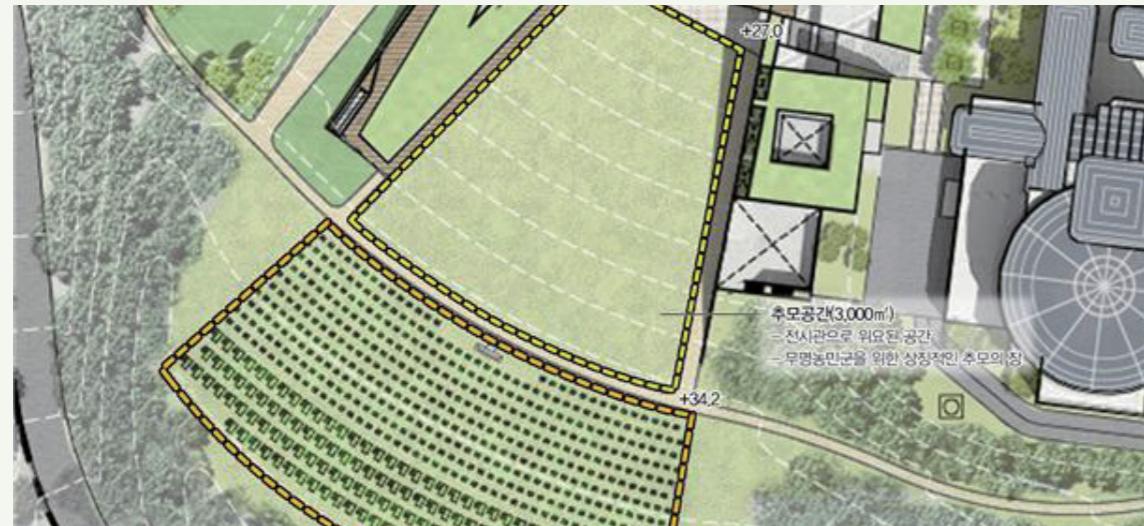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기둥 조형물이다. 울림의 기둥의 재질은 흰색을 띠는 화강석으로, 흰색은 농민군의 흰옷과 동학농민혁명의 순수성을 상징한다.



■ 농민의 벽 구상도 ■

### ■ 농민의 벽 ■

동학농민혁명 당시 봉기 및 전투장면 등을 모자이크 형태로 형상화한다. 이 벽은 무명천 등을 묶을 수 있는 입체적인 열린 구조(개비온)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는 주모 공간으로 조성된다.



■ 주모 공간 구성도

## ■ 주모 공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무명 동학농민군 넋을 기리는 공간으로 추모관과 참여자 묘역으로 이루어진다.



■ 캠핑장 및 연수동 구성도

## ■ 캠핑장 및 연수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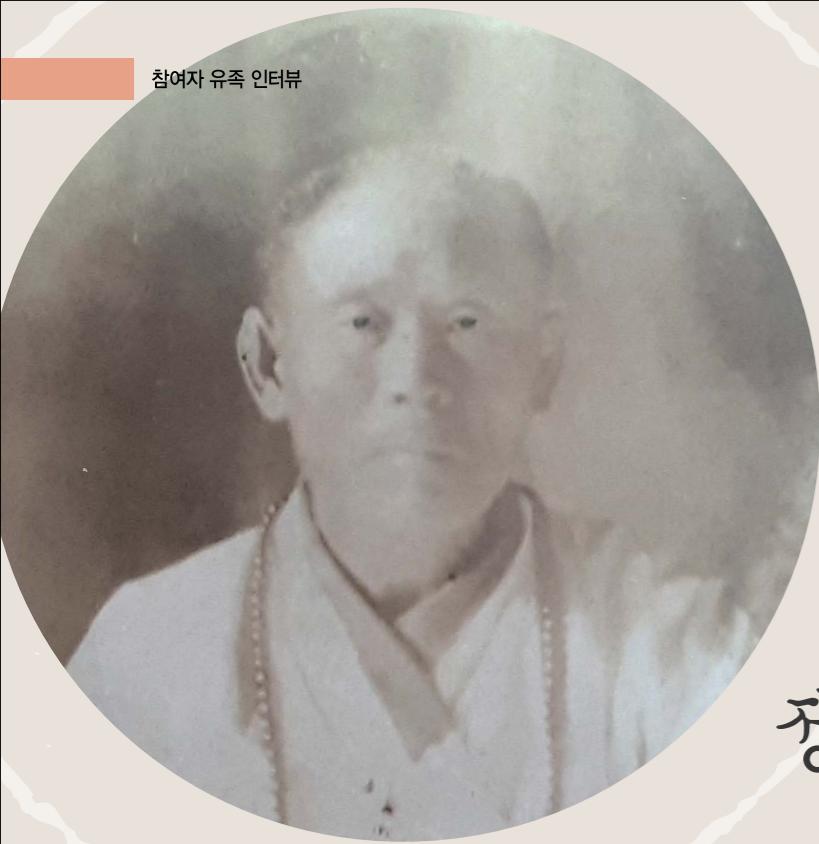
청소년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간이다. 연수동은 방 13개로 42명을 수용하며, 캠핑장은 총 60면으로 24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부지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



■ 현장 사무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태영의 증손자 정해곤

Q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정태영(1859~1922)의 증손자 정해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본인 소개와 근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면 충남 아산까지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 태자 영자의 증손자로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정해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장을 맡아서 활동하였고, 지금도 농민회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별로 없이 힘들지요. 지금이라고 별반 나아진 것이 없지만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농민들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에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농민회, YMCA 시민운동 등 이런저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안 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꺼이 한 목숨 내걸고 싸우셨던 증조부님의 피의 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참여 사실을 알게 된 경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A 증조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조부님께 들었습니다. 저의 조부님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신 아명은 수자 길자, 관명 규자 희자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나보다 증조할아버지께서 공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에 와서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부님께서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 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반일투쟁이라는 맥락에서 동일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Q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상해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 그해 7월 23일 일본군 경복궁 무단점령으로부터 일제의 국권침탈이 시작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셨던 조부님도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아주 당연한 인식이셨던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가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의 뒤안길에 암장(暗葬) 시켜 축소하고 왜곡시킨 결과 단절된 역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조부님의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신 조부님은 독립유공자이시죠?

A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조서를 정리하여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매번 할아버지께서는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유공자 신청을 하느냐’고 말리셨죠. 그래서 79년도 5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듬해인 1980년 독립유공자 지정신청서를 보훈처에 제출하였습니다.

Q 증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고, 조부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도 1970년대부터 농민회 활동을 해오셨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 내내 숙연해집니다. 선생님 집안의 내력이 곧 굴절 많았던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증조부님과 조부님, 그리고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내력으로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했는지요?



A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조부님이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는 저희 집안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곤잘 했지만 공부를 계속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증조부님과 조부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 했던 일들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광복회, 농민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 이런저런 단체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Q

네. 그랬었군요. 이쪽 충청도 내포지역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1차 때는 소강상태였으나 10월 16일(양력) 소위 북접대도주 해월 최시형 선생님께서 전국 동학교도 총동원령(청산기포령)이 내려진 후 태안 등 내포지역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갑오년 당시 증조부님은 아산에 거주하셨는데, 그 당시 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봉기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A

아산에는 동학농민혁명 집회지라든가 기포지, 전투지 등 뚜렷하게 드러난 활동은 없어요. 내포지역 여타의 지역 그러니까 태안이나 예산 이런 곳들보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은 아산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산 선장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독립운동은 몇 개 마을에서 몇 명만 참여했었는데, 아산 선장면은 12개리가 전부 독립운동에 다 참여했어요. 이런 걸 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아산 선장면 분들이 많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산 선장면은 위치가 인천광역시와 가깝고 하니까 선장에서 기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자를 낸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성묵 회장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산 선장면하고 도고면 이쪽에 동학농민군이 많았는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태형을 맞은 사람이 도고에 80명이나 있었고, 산장은 100명이 훌쩍 넘어 도고와 선장 사람들을 합치면 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한 지역은 도고에는 없고 선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운동 하는 조직이 선장을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자 그해 9월 24일 남원대회를 통해 반일항전의 의지를 표출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10월 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대도소를 설치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반일민족항쟁의 횃불을 높이 올립니다. 이후 10월 16일 이른바 북접의 동학교단에서 동학교도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10월 29일 충청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태안관아를 점령하고, 11월 22일 관작리(예산)전투, 구만포전투, 당진전투 등에서 승리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 동학농민군은 11월 24~26일 홍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벌었으나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증조부님도 내포지역의 여러 전투 등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님의 활동에 대하여 알고 계시거나 전해들은 얘기는 없으신지요?

A

제가 본 연구자료에 따르면 충남 신창의 동학 농민군은 10월 25일과 26일 신창현 남상면 판방리에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김경삼, 곽완(郭完), 이신교(李信教), 정태영(丁泰榮) 등의 접주들이 이끌었던 신창의 동학농민군은 천안의 동학농민군과도 연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창의 동학농민군은 당시 대포 2문을 보유하고 읍내에 석권할 만큼 기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기세를 떨치던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은 26일

이나 27일경 대홍과 홍주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증조부께서는 신창의 김경삼, 이신교 등의 접주들과 천안의 동학농민군과도 연계를 끊으면서 11월 24~26일(양력) 홍주성으로 이동하여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조부님은 1859년생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35세였는데, 홍주성전투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귀가했다고 천도교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Q

증조부님은 홍주성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귀가했다고 하셨는데, 귀가 이후 증조부님은 어떻게 지내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그리고 묘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A

네. 증조부님은 기미만세운동(1919년)이 일어난 것을 보신 후 1922년도에 돌아가셨고 묘소는 충청남도 아산 선장면 군덕리에 있습니다. 증조부님과 조부님, 아버지 모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증조부님 출생지는 충남 당진 신흥리인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피신하여 예산군 대술면 이티마을에서 사셨다고 해요. 여기서 조부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신이 출생지인 당진 신흥리도 아니고 조부님을 낳으실 때 사셨던 대술면 이티도 아닌 선장면 군덕리에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한 곳에 거점을 두고 살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Q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 일대에 2021년 완공목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 한 편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묘역과 수많은 무명동학농민군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관과 전시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념공원이 완공된 이후 차차 제반 절차를 거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을 기념공원 내 묘역으로 모시게 될 터인데, 조부님 묘소도 이 곳으로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 건국훈장  
독립유공자 정수길 님 (정해곤 님의 조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정해곤의 집  
(충남 아산시 선장면)



■ 충조부 정태영 접주 묘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292-6)



■ 충조부 정수길 독립유공자 묘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292-6)

A

네,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딱히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장면 군덕리 선산 맨 위에 정 태자 영자 중조부님의 묘소가 있고, 그 아래 독립유공자이신 정 수자 조부님의 묘소가 있고, 그 아래쪽에 저의 아버님 묘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조부님은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국립 현충원으로 모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이곳 선산에 중조부님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조부님이 “중조부님의 공이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등을 생각하여 두 분을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현충원 이런 곳을 정해서 한 곳에 집단으로 모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활동했던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된 이후 중조부님을 그곳으로 모셔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은 해봤지만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신 중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모시고, 독립유공자이신 조부님은 국립현충원에 모시려면 필연적으로 두 분을 멀리 떼놓아야 하는데... 이점이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Q

쉽지 않는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장소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꼭 한 곳에 모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각각의 지역과 장소를 잘 정비하여 후대들에게 애국애족정신 선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조부님은 1922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과는 달리 혁명 이후 28년을 더 살아계셨는데 그런 연유로 중조부님이 남긴 기록이나 중조부님 관련 유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증조부님 사진만 있습니다. 당시는 사진이 있기 어려운 시절인데 증조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었으니까 100년이 넘었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갑오년과 그 이듬해 일제와 관군에 의해 학살을 당했지만 저의 증조부님은 홍주성전투 때 부상을 당해 피난을 가서 살아 남으실 수 있었습니다. 증조부님은 피난 가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제 조부님을 통해 기미년 3·1만세운동에 힘을 쏟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의 조부님은 장남으로 증조부님의 파란만장한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고,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선대의 정신을 이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셨어요. 3년 동안 징용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결국은 그 병이 악화되어 57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7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아버지는 강제징용 다녀와서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천도교에 이름만 올리고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점에 대해 아버지에게 나무랐을 하셨지요.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집안 어르신들의 맥을 이어 이런저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강제징용 등을 통해 상처가 컸기 때문인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점을 늘 서운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Q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펼쳐졌고, 그 결실로 2004년 특별법,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나아나 지난 해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주관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펼쳐졌고, 올해도 오는 5월 11일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공포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섰던 분들을 ‘비적’, ‘반란군’ 등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지난 해 공식적으로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증조부님과 독립운동을 하셨던 조부님, 징용생활을 하셨던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족적 긍지를 곧게 세우려면 친일했던 세력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하여 제대로 대우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기미독립 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충남 아산시 선장면)



Q

선생님, 지난해까지 사단법인 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계셨지요? 올해 임기가 만료되어 다른 분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다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역할을 맡으셔서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학 3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까지는 많이들 그 활동과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시는데 천도교 4대 교주이신 춘암 박인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충남 예산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때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동학교단의 최고지도자 직책을 맡아 큰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저의 증조부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춘암 박인호 상사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천도교 예산지구를 창설하고 직위도 받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때나 그 이후에나 이곳 충청도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동학의 정신으로 곳곳에서 애국애족정신을 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동학농민혁명'하면 전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한데 이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홍주성에 있는 700의총(義冢)은 그 주인이 동학농민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주성의 700의총(義冢)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학농민군이 그 의총의 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직책을 맡고 있고, 광복회 아산지회장도 맡고 있으니까 잘 연계하여 홍주성 700의총(義冢)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열의를 기울일 생각입니다. 기념재단에서도 이점에 대해 깊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Q

네, 선생님 긴 시간동안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라남도 순천지역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전개된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기를 거치는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축소된 채 역사의 뒤판길에 버려져왔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분포한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출범되던 해부터 3년간(2010~2012) 전국의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분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한다.



▣ 낙안읍성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사적 제302호)

## 순천 낙안읍성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인배 장군이 이끌던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동학농민군은 순천(順天)을 근거지로 호남의 순천·광양·벌교·보성, 영남의 진주·하동 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다. 낙안읍성은 1894년 9월 15일(음력) 양하일(梁河一) 중심의 동학농민군에게 함락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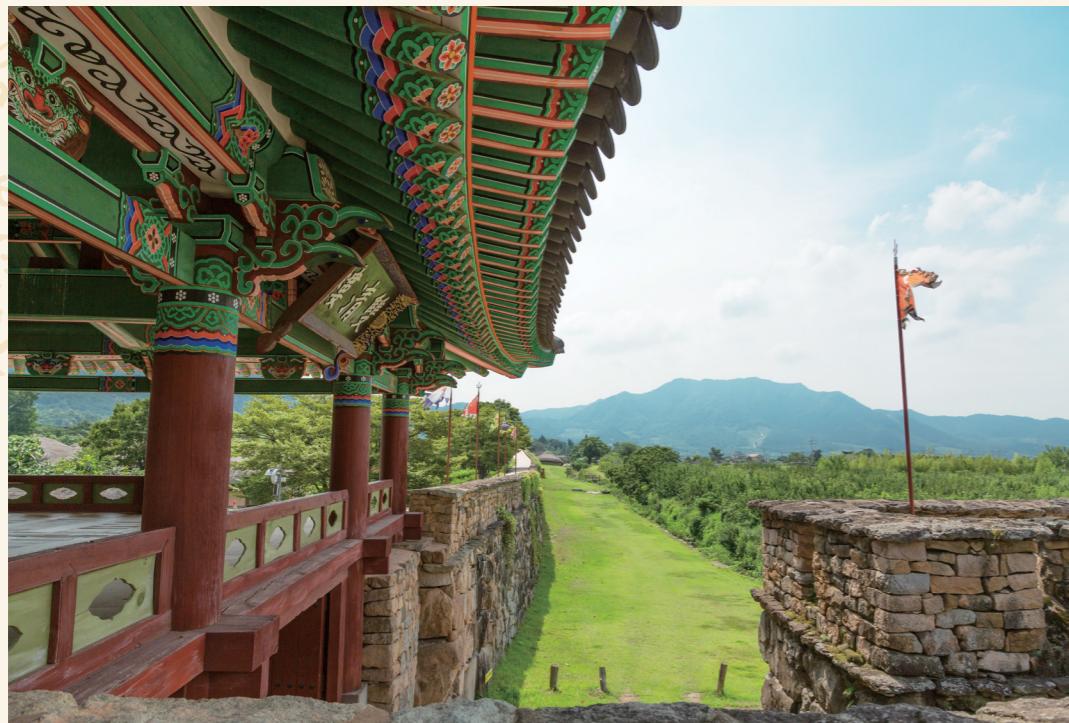
■ 낙안읍성 성벽

## 순천 선암사

전남 순천에 위치한 선암사는 백제성왕 5년(527년) 아도화상(阿度和尚)께서 창건, 이후 도선국사와 의천대각국사에 의해 중창(重創)되었다. 의천대각국사는 선암사대각암에 주석(駐錫)하여 천태종을 널리 전파한 호남의 중심 사찰이었다.



■ 선암사 대웅전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낙안읍성 성벽

## 영호대도소 터

동학농민혁명 당시 영호대접주 김인배 중심으로 농민군이 대도소를 설치했던 곳이다. 김인배는 전라도 군구 출신 농민군 지도자로 1894년 6월 말경 농민군을 이끌고 순천에 들어와 이곳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 영호대도소 터 부근 전경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95 일대

# 역사의 늪결을 찾아서



〈 박중규 님 〉  
대구 2020. 1. 8.

Q 선생님, 오늘따라 겨울비가 하루 종일 내려 기온이 찬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찾게 된 특별한 이유 라도 있으신지요?

A 저는 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중규라고 합니다. 전주에 일이 있어 잠시 머무르는 동안 전주 한옥 마을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곳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념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관람객들은 전시관을 보통 1시간 정도 둘러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온종일 꼼꼼히 살펴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A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평소에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전시관을 둘러보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밑에서 순사 일을 했었는데 일본 순사가 같은 조선인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격분하여 일본 순사를 때려눕혀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조선인으로서 일제 총독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순사 일을 한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만주로 가서 독립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병든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결국 병환(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별세한 후에는 집안 어른들께서 마당에 무궁화를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광복 이후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광복이 되었어도 일본 잔당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과거 친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이런 사실을 아버지와 삼촌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할아버지 생각도 났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던졌던 전봉준 장군을 비롯하여 무명의 동학농민군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람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시대상, 전개과정, 주요 인물, 결과 등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Q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의 집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증조부님은 지방에서 요직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증조부님은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셨는데 일본군이 그 땅에 주둔지를 만들어서 토지 반은 강제로 빼앗고 반은 현납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불과 20~30년 전의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시대와 그 이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의해 혐난한 세월을 보낸 우리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솔직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몰랐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 전개과정, 주요 인물, 결과 등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전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 중에서도 동학농민군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상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동학농민군들과 맞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관군이나 민보군이었지만 차후 동학농민군이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전시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내면적 갈등도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집안 내력 때문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전시뿐 만 아니라 영화나 공연 분야에서도 이런 소재를 많이 다뤄줬으면 합니다.

Q 선생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연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봄에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방영된 드라마 ‘녹두꽃’에서 형제이지만 형은 동학농민군으로, 동생은 동학농민군의 토벌대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과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화나 뮤지컬, 연극과 같은 예술분야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이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공포되어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식이 개최된 이후 국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인식이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 뮤지컬, 연극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이 제작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A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어난 일들은 비단 그 시대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나라를 지키고자 외세와 싸웠다면,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 같은 사회에서, 심지어 가족, 개인에서도 분열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왜곡·축소된 채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졌던 “동학농민혁명”的 역사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하면 ‘녹두꽃’을 연상 하듯이 녹두꽃이 만개한 성숙한 사회,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김정주 님 〉  
전북 부안군 2020. 1. 14.

(위 우측 첫 번째) 학교 다닐 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을 갖고 직접 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왜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병갑의 수탈, 관료들의 부정부패, 매관매직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 세력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집안도 아버지께서 농사를 힘들게 지어서 자식들 공부시켰고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부안 계화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외지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들이고 농민들은 임대료를 내

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때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달은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읍 시장 재직 때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에 힘을 기울였는데 작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공포되고 기념식까지 치르게 되어 참 감개무량 했습니다. 지금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에 되고자 전국을 다니며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는 정읍시문화역사답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강광(전 정읍시장) 님과 부인 〉  
전북 정읍 2020. 1. 16.



〈 서상엽·이영수 님 〉  
전남 광주 2020. 2. 4.

예전에는 '동학농민혁명'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역사적으로도 재정립되어 다행이고 참 좋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을 수탈하였는데 그 조병갑이 관직에 복귀하여 동학 2대 교주였던 최시형 선생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듯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런 기념관에 와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북 부안군 어르신들 〉  
2020. 1. 15.

저희는 부안 백산면에서 왔는데요. 전북 부안지역 역시 백산봉기가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전에도 왔었지만 자세히는 못 봐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진을 모아 전시한 기획전은 저희 어릴 때 생활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해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방영된 '녹두꽃' 드라마도 잘 봤는데 이렇게 기념관에 와보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 기념관에서 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오고 싶습니다.



〈 박채아·박태규 님 / 이서윤·이태운 님 〉  
전남 광주 2020. 2. 4.



〈 수녀님 〉  
전북 전주 2020. 2. 4.

저는 이번에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내가 몰랐던 역사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몇몇 지도자가 이끌어 가지만, 그 역사를 이어가는 주역은 민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의(義)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_ 2020년 2월 14일

장 소\_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및 녹두관

대 담\_ 김양윤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총무국장



Q 「녹두꽃」 이번 호의 기념사업단체 소식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민, 이하 전주기념사업회)를 찾았습니다. 김양윤 총무국장을 만나 단체창립 연혁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인소개와 함께 전주기념사업회 창립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김양윤입니다. 우리 사업회 역사를 살피려면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야 해요.(웃음) 제가 입사한 게 벌써 25년이나 되었네요.

Q 3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불가피하게 그 개념이 재정립되어야겠지만,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잖아요? 단체 창립에 대해서 30년을 거슬러야 한다고 하니 웬지 숙연해지네요. 「녹두꽃」 독자들에게 창립 무렵 얘기부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사업회 창립 무렵의 일들은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서 직접 겪지 않아 소상하게는 잘 모르지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마치고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명의로 우리 사업회에서 간행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이하 백서)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 백서는 지금 기념재단에서 일하시는 문병학 부장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쓰셨어요. 『백서』에 따르면 1988년

전북지역 문화예술전문지 『전북문화저널』 5월 호에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준비하자'는 칼럼이 게재됩니다. 이 칼럼을 당시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신순철 교수님이 쓰셨는데, 나중에 사석에서 웃으시면서 이 칼럼을 집필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칼럼을 쓰신 책임감(?) 때문에 1990~1991년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사업회 창립 이후 줄곧 상임이사, 사무총장 등을 맡아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헌신하셨지요.

Q 그 무렵,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기에서 후반기 우리 나라 민족민주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였지요? 제가 알기로 1980년대 서울에서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가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네, 맞습니다. 1986년에 역사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역사문제연구소 산하에 '갑오농민전쟁100주년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1993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동학농민혁명100주년전시조직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100주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렇듯 전북과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형태로 1992년 6월 5일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하였습니다. 창립이후 기념사업을 100주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중앙정부에 법인 설립을 추진하였고, 1993년 7월 31일 문화체육부 소속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가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이지요.

Q 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문화체육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네요?





**A** 그렇지요. 우리 사업회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때 문화예술인 모임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도 한낱한시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민족예술'이라든가 이런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되어 진보적 성향을 지닌 두 단체가 법인화가 성사된 것이지요. 인가를 받은 후 한국민예총과 우리 사업회에서는 문화체육부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사업회는 8천8백만 원, 한국민예총은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약 1억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하여 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셈이지요. 지금도 적지 않지만 당시에 2억은 큰 액수였습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자 우리 사업회와 한국민예총 그리고 서울의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단체협의회 창립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전주기념사업회, 한국민예총, 역사문제연구소를 비롯하여 경남 진주, 전남 광주, 충남 공주, 전북 정읍, 충북 보은 등지에서 활동하던 11개 기념사업단체가 1993년 12월 13일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에 있는 전봉준 장군 고택 마당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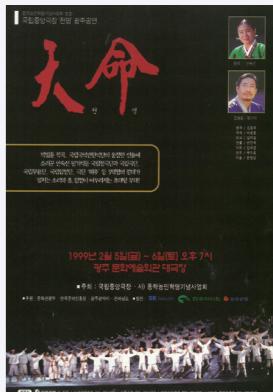
**Q** 아,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가 그렇게 창립되었군요. 그렇게 하여 백주년 기념사업을 동단협이 주최가 되어 추진하였지요?

**A**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념사업 총괄기획은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한 전주기념사업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기획팀을 구성하여 계획하였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는 실무적인 연계를 통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세 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이 1994년 2월 26~27일 이틀간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전북 정읍)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임을 알리는 큰 굿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대회인데, 4월 29~30일 양일간 전주시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세 번째 축은

10월 29~30일 공주우금티 추모예술제로 100주년 기념사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 축으로 추진한 100주년 기념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894년 이후 100년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즉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첫새벽을 연 반봉건 민주운동,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근대 최초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 시킨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런 성과가 10년 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을 견인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이후 전주기념사업회에서 아주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셨지요? 1999년 초에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음악극 '천명'을 서울 국립중앙극장,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전북 전주시 삼성문화회관 등지를 순회하는 공연을 개최하여 대중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요? 그때 천명 출연진과 스텝이 거의 2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던데, 그렇게 대규모 작품의 순회공연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요?

**A**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끝난 후 우리 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동학농민군서훈추진위원회 발족을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이사장님이시던 한승현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모금운동도 벌이고, 중앙언론사를 통한 홍보 광고도 추진하고 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을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범국민적인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인식제고를 위해서 언론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된 문화예술작품을 순회공연하며 범국민적인 관심과 인식의 제고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울 김용옥 선생이 대본을 써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서울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음악극 '천명'을 다시 무대로 옮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창극단, 국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국립중앙극장 소속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작품으로 음악극 '천명'을 리바이벌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월과 2월 사이 서울에서는 국립중앙극장,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북 전주에서는 삼성문화회관에서 총 6회 순회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언론사는 물론이고, 순회하는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객석은 전석이 매진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입석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연장 내부 객석 사이에 임시좌석을 배치하는 등 아주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은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법 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관련 활동을 위해 2000년 1월 17일 동학농민혁명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초대 회장을 김태식 국회의원님이 맡으셨고, 이 모임을 준비하고 운영해나가는데 당시 장영달 국회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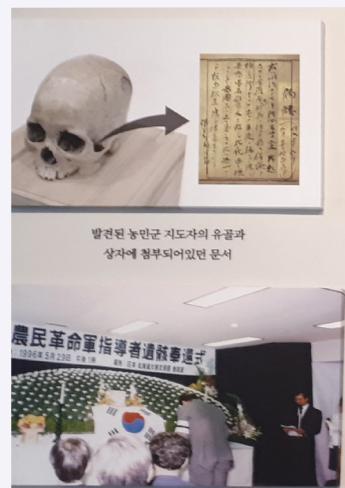
□ 음악극 천명 포스터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식 (1996. 5. 29. 일본)

발견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과  
상자에 첨부되어있던 문서

유골에 적힌 말로 해당인물을 추정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발견 및 봉환

Q 네, 전주기념사업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수행하셨네요. 여러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으로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국내로 모셔온 사업이 있지요? 지도자 유골을 국내로 모셔오게 된 경위와 그분을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전주시 완산동 완산칠봉 끝자락에 '녹두관'을 건립하여 그곳에 안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1995년 7월 25일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고(標本庫)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머리뼈(인골 人骨) 6구가 일본의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에 의해 발견되어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언론에 유골 발견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해도대학 문학부 장고에 신문지에 싸여 종이상자에 넣어진 채 발견된 유골의 여섯 구 중 한 개의 유골에는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는 글씨가 먹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골 속에 첨부된 문서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9월 20일 진도에서 한국동학당 봉기 때 효수된 수괴자의 것"이라는 내용과 한국통감부 농업관리인 사토 마사지로라는 일본인이 전남 진도에서 시찰 중 수집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북해도대학은 당시 식민지 지배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인종학을 연구하는 일종의 특성화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합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일본인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당시

전주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한승현(前감사원장) 변호사님은 1995년 8월 일본 북해도대학에 한국인 유골의 국내 봉환을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발송하였고, 1996년 2월에는 일본 북해도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유골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온 즉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등과 협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군지도자유해봉환위원회(상임대표 한승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골을 1996년 5월 30일 대한항공편으로 국내로 모셔왔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노제를 올린 후 전주로 곧장 내려와서 그 이튿날 5월 31일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전주 덕진문화예술회관에서 진혼제를 올렸습니다. 이후 유골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학농민군지도자유골조사위원회(위원장 신순철)을 구성하고 2년여에 걸쳐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골에 붙어 있던 치아 한 개에서 DNA를 검출하여 조사한 결과 "30~40대, 한국인, 남성"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사업회에서는 유골의 안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유골을 수집한 전남 진도군을 찾아 안장을 요청하기도 했고, 동학농민군 최초 승전지인 황토현전적(국가 사적 295호) 안에 매장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도 했고, 동학농민군 구미란 전투지인 전북 김제시 구미란 마을 뒷산에 매장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 술한 안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사率를 보지 못하다가 2015년 전북 전주시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동학농민군 완산전투지에 유골을 모시기 위해 '녹두관'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마침내 지난 해 2019년 6월 1일 그분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그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 꽃상여 행진



□ 유골 안장을 위해 녹두관으로 가는 길



□ 추모사 | 이노우에카즈오 명예교수



□ 추모사 | 한승현 상임대표·변호사



■ 유골 안장식 (2019. 6. 1.)

**Q** 얘기를 듣다보니 울분이 솟구치기도 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처형된 후 백골마저 다시 토별을 자행했던 당사자인 일본으로 무단으로 반출되어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 마음에 죄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비로소 그분께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녹두관에 모시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골이 동학농민혁명 역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듣다면 무엇일까요?

**A** 일본군은 조선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른바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우리나라를 전장으로 만들었으며,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후 그 총구를 동학농민군에게 돌려 수많은 농민군을 학살하였습니다. 갑오년 당시 학살당한 동학농민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연구되지 못한 채 연구자들마다 그 숫자를 각기 다르게 말합니다만 어떤 연구자는 30여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 기록이나 이런 것을 일본인들은 남기지 않았지요. 자기들의 천인공로 할 만행을 철저히 말살시킨 결과이지요. 그런데 이 유골은 아주 명확하게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을 일본군과 관군이 연합한 연합부대가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해,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수부였던 전주성을 함락한 125주년을 맞은 5월 31일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튿날인 6월 1일 이곳 녹두관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날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그분을 꽃상여에 모시고 옛 전주성을 한 바퀴 돌아서 완산칠봉자락에 위치한 녹두관에 안장하였지요?

**A** 우리 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표자 및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정신 선양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의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등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폭넓게 안장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이분을 모시는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

땅히 이분을 꽃상여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에 모두 적극 동의하여 꽃상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중간 중간에 많은 시민들이 꽃상여를 멈춰 세운 뒤 상여에 올라 상여의 틀에 노잣돈(현금)을 꽂아드리는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통 중의 하나가 꽃상여가 나갈 때 상여를 세우고 저승 가는 노자로 쓰시라고 돈을 꽂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이 실제로 재현된 것이지요.

**Q** 네, 인터뷰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긴 시간동안 애써 기억을 더듬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주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사업회는 1991년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매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4월),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기념대회 및 기념주간(5월 말 ~ 6월 초),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대회(10월),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11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안군 백산봉기기념사업회, 완주군 삼례봉기기념사업회가 각각 창립되면서 그곳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지역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기념주간으로 정해서, 복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라감영과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모신 완산칠봉자락의 녹두관 등을 잇는 구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 녹두관 내부

■ 녹두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4-9)

## 순창 총댕이 마을 준공식



지난 2019년 12월 2일 '순창 총댕이(피노)마을' 준공식이 순창군 쌍치면 피노리에서 열렸다.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과보고, 뮤지컬 공연,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최영일 전 북도의원을 비롯하여 관련기관 관계자,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관군에게 체포된 역사현장으로, 전라북도에서 2015년부터 총댕이 마을 일대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선정,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4주년 기념행사



▣ 축사 | 유기상 고창군수



▣ 축사 |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 봉정 |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문화 공연 | 광대 1894

지난 1월 10일 고창군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 공동주최로 '전봉준 장군 탄생 164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봉정의식에 이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된 전통 타악 '광대 1894' 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민 800여 명을 비롯하여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최효섭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이사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김준성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 문화 해설사가 들려주는 동학농민혁명

문화 해설사  
김기정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 해설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이런 것이구나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관람객들 또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내용 중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의 자작고개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농민군들이 쓰러져 피를 흘렸으면 자작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라고 하자 관람객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 마음은 다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추모 공간(진혼관)에서 다 함께 묵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 “참 감사합니다”고 답했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 해설사  
송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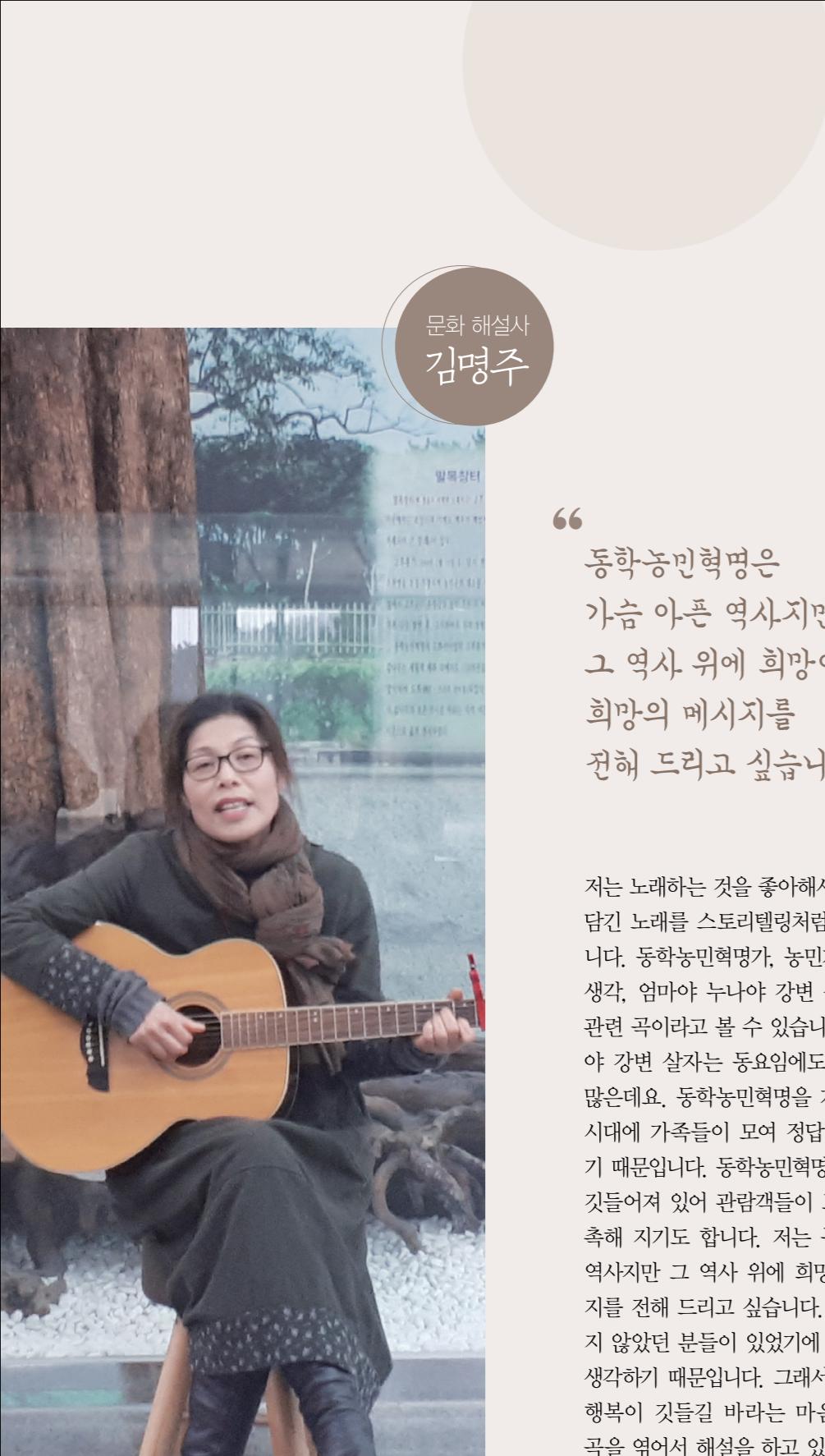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의미를 관람객들에게 바로 설명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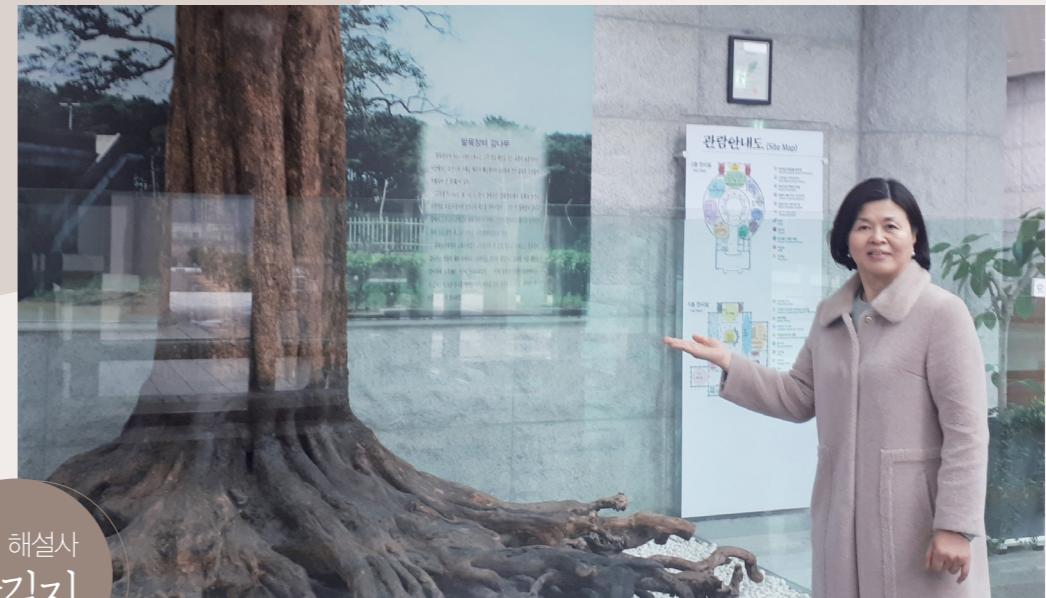
■ 일본 역사 탐방팀과 함께 (2019년 가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오는데 특히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단체는 작년 가을 일본 역사학자 나카즈카 아키라 교수님과 함께 온 일본 역사 탐방팀입니다. 이 팀은 2006년부터 일본의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매년 동학농민혁명 역사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홍보용 동학농민혁명 관련 만화를 일본어로 쓴 요에 카쓰히코 씨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설을 진행했는데 70여 명 정도 되는 탐방팀 중 누구 하나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일본 역사 탐방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부분과 청일 전쟁 등 역사적 사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일민족항쟁이자 반봉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라도 고부 조병갑 학정에 반해 일어난 반란 사건으로 왜곡·축소하였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해설사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의미를 관람객들에게 바로 설명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은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 위에 희망이 피어나듯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해설할 때 역사적 내용이 담긴 노래를 스토리텔링처럼 엮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가, 농민가, 죽창가 뿐 아니라 오빠 생각,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빠생각,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구슬픈 내용이 많은데요. 동학농민혁명을 거쳐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대에 가족들이 모여 정답게 살고 싶은 염원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곡은 아픔과 슬픔이 깃들어져 있어 관람객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 지기도 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은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 위에 희망이 피어나듯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이 아닌 희망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곡을 엮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  
슬퍼하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하는 한  
두 번 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봉준 장군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관람객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해설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마치 동학농민군이 된 것처럼 감정이 북받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의회 의원 분들에게 해설하면서 동학농민군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던졌는데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시느냐고 저도 모르게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백성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무고한 백성들이 처절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문화 해설사로서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전해 주는 일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마음을 가슴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해설 할 때 꼭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 방영된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압송되어 가던 중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하는 한 두 번 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봉준 장군이 하셨던 대사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오는 관람객들에게도 그 대사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주요 방문 단체는 세종충남노동조합(16명), 공무원교육원 교육생(40명), 신안문화원(35명), 나라사랑 청년회(25명), 부안군 계화면(35명), 정읍시 문화유적답사회(43명), 전남 무안군 친목단체(37명), 전남 진도군(11명), 전북MC협회 위어스(15명), 전라북도 인재개발교육생(33명) 등이다.



1	2
3	4

- ① 세종충남노동조합(16명)  
② 공무원교육원 교육생(40명)  
③ 신안문화원(35명)  
④ 나라사랑 청년회(25명)

##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9	10

- ⑤ 부안군 계화면(35명)  
⑦ 전남 무안군 친목단체(37명)  
⑨ 전북MC협회 위어스 (15명)  
⑥ 정읍시 문화유적답사회(43명)  
⑧ 전남 진도군(11명)  
⑩ 전라북도 인재개발교육생(33명)

##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명 및 활동내용			운영일정	장소	참여대상 /인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는 하늘이다'	어린이전시실 관람, 농민군 되어보기, 팝업북 만들기	3~6월, 9~12월 (수·목·금) 60분 소요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미취학 아동~ 초등 2학년 /30명 내외(단체)
	청소년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동학농민혁명 이해, 팝업북 만들기, 도전 골든벨	3~6월, 9~12월 (수·목·금) 이론 40분/ 체험 80분	교육관, 전시관	초등 3학년~ 중·고등학생 /30명 내외(단체)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사람답게 사는 세상'	동학농민혁명 이해, 입체퍼즐 만들기, 동학보드게임	3~6월, 9~11월 (월·화) 이론 40분/ 체험 80분	전국 초등학교 방문 운영	초등학생 전 학년 /30명 내외
교원직무 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전문 강사의 강연 및 유적지 답사)			하반기/ 1박 2일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초·중등 교원 /40명 내외
생생 문화재	1박 2일 답사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5~10월(4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일반인(성인, 가족) /38명 내외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파랑새를 찾아서'			6~9월(5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38명 내외
	1일 체험 프로그램 '황토현에서의 하루'			6~9월(4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전국 중학생 /38명 내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꿈을 품은 박물관'			9월(4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전국 중학생 /38명 내외

### ※ 교육·체험 프로그램 신청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http://www.1894.or.kr)) 접속 → '교육체험'이동 → 신청하기 → 담당자와 일정 확인

전화 문의 : 063-536-1894 (기념관) 대표 이메일 : [1894@1894.or.kr](mailto:1894@1894.or.kr)

자세한 일정은 동학농민혁기념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 기념관 전시해설 안내

동학농민혁기념관에는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돋기 위해 전시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1894.or.kr](http://www.1894.or.kr)) → '동학농민혁기념관'이동 → 예약 또는 전화문의 063-536-1894